

우리의 현실과 신세대의 역할



글·홍창권
중앙대학교 의료원장

최근 우리사회에서 나이가 들어 별로 쓸모없는 세대를 일컬어 흔히 쉰 세대라고 부른다. 쉰 세대라는 말이 쉰과 세대의 합성된 말이라는 것은 어느 누구라도 쉽게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국어사전을 보면 쉰은 “쉬흔(오십)의 준말, 음식 등이 맛이 상하여 시금하게 변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데,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쉬다라는 말은 “하던 일을 얼마동안 멈추다 라는 뜻과 목소리가 맑지 않고 거칠고 흐리게 되다 라는 뜻” 등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 따라서 쉰 세대라는 말은 나이 오십이 넘어 하던 일을 멈추는 심상하지 않은 별 볼일 없는 연령층을 말한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1997년 외환 위기로 인한 IMF 경제 체제를 겪으면서 생겨난 이 쉰 세대라는 말이 유행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변화하고 있고 사회의 중심이 되는 연령층이 젊어지고 있음을 암시한다고 하겠다. 사실

IMF 경제 체제 이후 우리 사회의 많은 것들이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경제위기를 해결하기 위하여 IMF체제라는 외부의 힘에 의해 시작된 경제 분야의 변화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사회, 문화, 정치 등 모든 분야에 까지 영향을 미쳐 사회 전반에 걸쳐 변화된 모습들이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들 변화 속에서 현실적으로 직접 실감하게 된 가장 중요한 변화는 구조조정으로 인한 속칭 쉰 세대라고 불리는 기존 세대의 퇴진과 새로운 세대의 등장으로 우리사회의 중심축을 이루는 연령층이 젊어졌다는 것이다.

IMF 체제 이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사회의 중심이 되고 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그룹은 오십세 이상의 연령층이었다. 유교적인 전통과 관습이 생활화되어있는 우리나라에서 오십세 이상의 연령층이 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었으며 이를 뒤집는다는 것은 상상조차 하기 힘든 일이었다. 이와 같은 오랜 전통과 관습은 IMF 체제가 들어서면서 무너지기 시작하였으며 이는 당장 우리사회에서 당연하게 여겼던 연공서열과 정년보장의 파괴라는 엄청난 결과가 현실로 나타나게 되었다.

조국 근대화의 역군으로서 수십 년간 굶은 일 마다 앓고 밤 새워 일하여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던 우리나라를 개인소득 일만불의 세계 10대 교역국으로 만들었다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이제는 과거의 선배들처럼 편안하게 직장생활을 즐기려 하였는데... 세상은 변하여 퇴장을 해야만 하는, 과거에 가장 각광받던 세대가 이제는 가장 별 볼일 없는 쉰 세대가 된 것이다.

이와 같은 기존 세대의 퇴진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하나의 작은 변화였을 뿐이며 실제로 눈에 보이지 않는 엄청난 변화가 20세기 후반기부터 서서히 시작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20세기 후반기에 시작된 발전과 변화는 인류역사상 가장 단기간에 일어난 가장 큰 발전과 변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를 두고 어떤 학자는 현대 사회에서 3일간에 일어나는 발전과 변화는 이집트 역사 3천년동안 일어났던 그것과 견줄만하다고 말할 정도이니 현재의 발전과 변화의 속도가 어느 정도인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자연과학 분야의 눈부신 발달로 인한 물질문명의 발달은 다른 모든 분야 전반에 영향을 주어 지금까지의 전통과 관습, 그리고 사고와 관념을 변화시키기에 충분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20세기 후반기부터 이미 서서히 진행되고 있었으며 유교 문화권인 우리나라에서는 다만 표출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수면 아래에서 진행되어온 이들 변화는 IMF체제라는 외부의 힘에 의해 수면 위로 표출되었고,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쳐 우리의 관습과 관행, 사고와 관념을 바꾸었고, 2002년 월드컵 대회와 대통령 선거를 거치면서 이들 변화된 사고와 행동들은 우리사회의 중심에 자리 잡게 되었다.

이제 우리사회에서 변화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되었다. 변화를 거부하거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낙오자가 된다는 것은 자명한 이치이다. 특히 이미 사회 중심에서 밀려난 쉰 세대에게는 변화에 얼마만큼 빨리 대처하고 적응하느냐에 따라 각자 미래의 삶의 방향이 결정될 것이다. 변화에 빨리 대처하고 적응하기 위해서는 현재 우리사회의 중

심에서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젊은층의 사고와 관념, 행동과 생활양식 등을 파악하여 그들 속으로 들어가 그들과 함께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며, 이는 더 나아가 쉰 세대가 그들의 진정한 리더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한다. 최근 어느 회사에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조사 분석한 보고서에 의하면 P세대라고 일컫는 17~39세의 연령층이 소비의 주체가 되었음은 물론이고 여론까지도 움직이는 그야말로 대한민국을 변화시키는 태풍의 주역으로 등장했다고 한다. 이들은 사회전반에 걸친 적극적인 참여(Participation)속에서 열정(Passion)과 잠재력(Potential Power)을 바탕으로 사회 패러다임에 변화(Paradigm - Shift)를 일으키는 세대로서 이들 중 80%가 '스스로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이들 성향을 보면 기존세대가 안정적이고 현실 수용적인 삶을 살고, 오프라인에서 형성된 수직적이고 한정된 인관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공동의 목표를 우선하는 집단주의세대로서 경제적 성공을 추구하고 논리, 이성, 이데올로기에 의존한 세계관을 가지는데 반해 P세대는 탈 권위적이고 변화에 도전하는 삶을 살고, 인터넷을 통한 수평적이고 폭넓은 인간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다양성을 인정하는 개인주의 세대로서 다양한 분야에서 경험을 추구하고 감성, 직관, 이미지에 의존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 최근 2002월드컵, 촛불시위, 대통령 선거 등을 거치며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활동이 급속하게 증가하는 이면에는 이들이 있었으며 이들 변화가 결코 우연이 아니었던 것이다.

이들 P세대의 탄생은 과학의 발달로 인한 정보화, 정치적 민주화에 따른 자유화, 경제성장으로 인

한 부유함, 그리고 해외여행 자유화와 IMF 체제 이후 글로벌 스탠더드의 확산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한다.

이와 같이 현재 사회의 중심에서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일명 P세대라고 칭하는 젊은층은 성장배경부터가 기존세대와는 판이하다. 따라서 쉰 세대가 이들을 이해하기란 그리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자신을 위하여 나아가 사회와 국가를 위하여 이들을 이해하고 이들과 함께 호흡하며 진취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변화를 이끌어 나가야 한다.

“역경이 사람을 부유하게 하지는 않으나 지혜롭게 한다”는 말처럼 쉰 세대에게는 어려움속을 살아오면서 가난과 역경을 이겨낸 경험과 지혜가 있다. 일본의 심리학자 미나미 히로시는 “定年은 있을지 언정 停年은 없다”고 하였다. 쉰 세대의 풍부한 경험과 지혜를 새로운 변화에 접목시켜 우리 사회와 국가가 건전하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변화를 이루어 나가게 하여야 할 것이다. 하버드 대학교 교육심리학자 하워드 가드너 교수는 “우리 시대의 리더는 해박한 지식을 통한 설득이 아니라 감성 바이러스가 담긴 이야기를 통해 사람들의 잠재된 욕망을 자극하고 공감을 끌어 낼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였다. 이 말은 현 시대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젊은 이들이 가지는 사고와 가치관이 과거에 비해 변화한 것을 보여주는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된다.

세상이 너무 빠르게 변화한다고 두려워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풍부한 경험과 지혜를 살려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변화를 주도하고, 나아가 변화를 창조해 나가는 진정한 이시대의 리더가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는 쉰 세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2003